

“장성으로 여름휴가 오면 여행경비 20만원 드려요”

지출 경비 따라 상품권 차등 지급 담양군 관광활성화 상생 협약 등

장성군이 여름 성수기인 7~9월, 장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누리집을 이용해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여행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여행사진,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내면 지출 경비에 따라 5·10·15·2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희망 주소지로 보내준다.

장성지역 숙박업소, 식당, 커피숍 등의

이용내역이 모두 지출 경비에 포함된다. 단 캠핑, 카라반, 글램핑은 숙박업소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방문의 해’를 검색해 공식 누리집을 찾은 다음 ‘쏟아진 여행 이벤트’ 항목을 선택하면 자세한 설명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홍길동테마파크 가운데 3곳 이상 방문하고 인증사진과 인증도장(스탬프)을 받으면 장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 중이다.

축령산 편백숲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

고 모암주차장~추암주차장 구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백숲트레킹 관광객 이동수단 전액지원’도 눈여겨볼 혜택이다. 전액지원사업인 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웃 담양군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다. 담양 관광지 8곳중 1곳을 방문 후 장성군 내 지정된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경우 장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의 지정관광지는 메타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호 옴마루길,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금성산성이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달 20일 담양군과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홍보·방문객 유치, ‘지역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관광 마케팅 추진’,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교류행사 추진’,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부담은 적고 혜택은 풍성한 올여름 장성 여행을 자신있게 추천한다”면서 “가족, 지인과 함께 장성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경찰, 범죄 예방 교실 개최 관내 이장단 협의회 대상 진행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노안파출소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노안면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안면 이장단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 내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교통, 생활, 서민 경제 등 3개 분야 기초 질서 확립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약 부도 등이다.

홍제욱 노안파출소 소장은 “음주소란과 쓰레기 투기, 무리한 끼어들기나 불법 유턴 등 기초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근절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예약 부도 및 경조사 사칭 스미싱의 경우 예방 홍보활동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물놀이 페스타’ 안전관리 총력 함평군, 다중운집 대응책 수립 등

전남 함평군이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되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앞두고,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점검을 위한 ‘제3회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상익 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으며, 함평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행사 전반의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행사 안전관리 조직 편성 △다중운집 대응 매뉴얼 △비상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며 실행 방안과 보안 사항을 정비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31일간 개최되며, △서바이벌 물총대전 △징검다리 챌린지 체험 △EDM 버블파티 △K-POP 댄스 공연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총 1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포함 총 15일간 열린다. 매주 월요일은 환경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행사장은 최대 동시 수용 3115명 규모로, 군은 혼잡 방지를 위해 매표소를 운영하고 전시관·체험장을 활용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전담 안전요원 배치, 현장 중심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사전 교육 실시 등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도 마련된다.

폭염에 대비해 인조잔디, 그늘막, 살수 시설, 냉풍기, 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 체계 가동, 안전수칙 안내 방송을 통해 이용자 안전 의식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막 전에는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함평의 대표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동화면 램프공원이 전남 경관조성 공모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버베나축제 현장.

장성군 제공

보랏빛 버베나 물든 장성 램프공원, 야경 명소로 재탄생

장성군 동화면의 램프공원이 전라남도의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야간 명소로 거듭난다. 장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야간경관 조명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관광 명소 조성에 나선다.

‘전라남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정체성과 기능성을 반영한 경관 디자인이 핵심이다.

인인 핵심이다.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램프공원은 동화나라 버베나축제가 열린 곳으로, 유희지였던 공간을 마을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꽃밭으로 가꾸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버베나가 물든 보랏빛 풍경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그늘막과 의자 등 편의시

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로써 공원은 낮뿐 아니라 밤에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년간 진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랏빛 버베나와 화려한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장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폭염 장기화 농작물 피해 예방 당부

현장 기술지도 강화

전라남도 영광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광 지역은 지난주부터 33도를 웃도는 고온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주말까지도 뚜렷한 강수 예보 없이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농작물은 수분 부족, 일소(햇볕 데임), 열과(열로 인한 과실 갈라짐) 등 생리장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병해충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

합적인 농작물 관리 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발작물의 경우, 이른 아침과 해 질 무렵 충분한 관수를 실시해 토양 내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비닐 멀칭을 통해 수분 증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는 점적 관수 장치나 간헐적 관수를 통해 토양 건조를 막고 과실 생리장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의 일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광망을 설치하고 칼슘제나 생리 활성제 등을 활용해 과실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불어 햇빛이 과실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가지를 정비하고, 과수원의 통풍을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

병해충 및 농작업 안전 관리 측면에서

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라 노린재, 총재벌레, 진딧물 등 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발생 초기부터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수분 섭취와 휴식 시간 확보 등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운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되는 폭염과 기상이변은 작물뿐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며 “농가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안내한 관리 요령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여름맛이 할인 이벤트 진행 1인당 최대 4회 3000원 할인

화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7월9일부터 31일까지 여름맛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에서 1만 2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먹깨비’는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민간 배달 앱 대비 **낮은 수수료(1.5%)**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비와 광고비도 없다.

결계 수단으로는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먹깨비’를 검색해 내려받고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여름철 지역 소비 진작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